



# 윤상일 소설 「보이지 않는 제국」

지상사, 2008

박 흰 일\*

## I. 법정 드라마의 인기상승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법정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 방영되었던 TV드라마 <신의 저울>에서는 현실의 범죄 상황을 사법연수원의 모의재판으로, 실제 수사과정에서 리얼하게 묘사하여 주목을 받았다. 종래 “법은 어려운 것”이라는 관념을 깨고 변호사, 판검사들도 애증의 감정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드라마, 영화, 소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법률상식을 늘릴 수 있는 것도 기대 이상의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미국에서는 더욱 현저하다. 변호사가 없었으면 할리웃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변호사들이 스튜디오에서(법률문제의 자문역으로서), 촬영장에서(주요 등장인물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법정소설이나 영화, 드라마는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sup>1)</sup>

오래 전에 소설과 영화로 소개되었던 <야망의 함정>(원제 The Firm)에서는 휴양지인 케이만 섬에 출장 차 간 변호사들이 의문의 사고사를 당하는가 하면 댄피스의 법률회사에는 엄청난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에 하버드 로스쿨 출신 주인공이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 엄청난 음모가 개재되어 있음을 차차 알게 된다. 같은 작가의 소설 및 영화 <펠리칸 브리프>에서는 루이지애나주 툼레인 로스쿨의 여대생이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분석 정리한 보고서(case brief)가 법대 교수 등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불러온다. 마침내 펠리칸 서식지의 유전개발을 둘러싼 이권다툼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난다. 개봉 당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던 영화 <데블스 애드버킷>(Devil's Advocate)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송에서 連勝행진을 기록하는 변호사의 헛된 야망을 마치 한단지몽(邯鄲之夢)인 것처럼 보여준다.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 필자는 홈페이지<<http://onepark.khu.ac.kr/>>과 법률 사이트 로앤비<<http://www.lawnb.com/>>를 통하여 영화 속의 법률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미국 변호사협회지(ABA Journal) 2008년 8월호는 25편의 法律名畫(The 25 Greatest Legal Movies)를 선정 발표하였다. 그 중 10위까지만 소개한다면, 1위 앵무새 죽이기(1962), 2위 12명의 분노한 배심원(1957), 3위 내 사촌 비니(1992), 4위 살인자의 해부(Anatomy of a Murder, 1959), 5위 침묵의 소리(Inherit the Wind, 1960), 6위 검찰측 증인(1957), 7위 파괴자 모란트(Breaker Morant, 1980), 8위 필라델피아(1993), 9위 에런 브로코비치(2000), 10위 폴뉴먼의 심판(Verdict, 1982) 등이다.<sup>2)</sup> 이들 각각의 영화는 로스쿨의 법률실무(lawyring) 교재로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 II. 궁금증을 더 하는 음모론

윤상일 변호사의 장편소설 <보이지 않는 제국>이 독자들에게 불어넣고자 하는 것은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사건에는 뭔가 음모(conspiracy)가 개입되어 있지 않나 하는 직감이다. 우리 민족은 8·15 해방 후 남북분단과 냉전 이상의 남북대치 상황, 외환 위기와 IMF 구제금융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生死의 위기 또는 경제적인 곤경에 빠진 적이 있기에 이런 일에는 모종의 음모가 있지 않나 하는 통찰력 비슷한 이해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설 속의 사건이 우리가 IMF 사태 이후에 경험했던 일련의 사태와 너무 흡사하게 진행된다.

[소설의 중심 축을 이루는] 장미은행 [독직 및 M&A] 사건과 최강 로펌 합병 건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 . . 그 음모의 핵심은 바로 주가조작이었고 주가폭락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의 출발점이었다. . .

먼저 장미은행은 라 쉴드 그룹의 사모펀드인 바르비종 아트펀드에 거액을 투자한다. 그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바르비종 아트펀드가 투자실패로 큰 손실을 입었다는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한두 번씩 흘린다. 그러면 장미은행의 주가는 그때마다 출렁이다가 소문이 잠잠해지면 다시 원상대로 회복된다. 이렇게 국내 증시의 추이를 관망하다가 세계적인 회계법인이고 장미은행의 자문 역할을 하는 알베르트 앤 구스타브 회계법인이 바르비종 아트펀드에 대한 투자분석보고서를 비밀리에 작성하여 장미은행으로 보낸다. 마치 회계법인으로서 장미은행의 투자손실을 사전에 알고 자문해주는 것처럼 말이다. 장미은행으로서는 당연히 투자보고서를 비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때가 됐다고 판단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장미은행의 내부 인물을 사주해서 정의와 진실을 위해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투자보고서를 외부로 유출시킨다. 한국 사회의

2) 기사 원문은 필자의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으며, 최신작은 필자의 홈페이지 영화 코너에 해설되어 있다.

특성상 시민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시민단체 간부에게 정보를 흘린다. 시민단체에서는 장미은행의 투자손실과 회계조작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영진들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로 한다. 여기에 최강 로펌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되면 투자보고서의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장미은행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IMF를 경험해 본 투자자들은 패닉상태에 들어가서 너도나도 주식을 팔아치울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더 폭락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장미은행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지만 전처럼 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리기는 어려우니까 결국 매각하기로 하되, 국내 재벌이 인수하는 것은 여론과 국민정서상 용납이 안 되니까 결국 해외매각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이때 준비하고 있던 히든카드가 바로 BOA와 사모펀드 그리고 다비드 앤 솔로몬(최강 로펌을 인수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로펌)의 컨소시엄인 것이다. 물론 인수 작업과 관련된 모든 법률 작업은 다비드 앤 솔로몬이 맡는다. 다비드 앤 솔로몬은 최강을 합병하려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미도 있지만 장미은행을 인수한 후에 뒤처리를 무리없이 하려는 뜻도 있었다. (303~304쪽)

이상으로 스토리의 전개는 이해가 가지만 전후 맥락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잡다한 역사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대목에서는 작중인물의 입을 빌어 작가의 백과사전적인 지식과 소설과 영화 <다 빈치 코드>에서도 묘사되었던 신비스러운 단체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외국 기업들을 보면 서로 아무 연관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들은 처음부터 한통속이었던 것이다. 주가폭락을 통한 장미은행 헐값인수라는 거대한 음모의 한 부분씩을 맡았다. 그들의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먼저 라 쉴드 그룹은 19세기 유럽 금융계를 석권한 로스차일드 가문 중 파리에 정착한 나다니엘 남작의 아들이 중심이 돼서 설립한 금융그룹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영국에서 법률을 전공하던 나다니엘의 손자와 그 친구들이 뉴욕에서 다비드 앤 솔로몬이라는 로펌을 창립한다. 그리고 알베르트 앤 구스타브 회계법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했던 또 다른 로스차일드 가문의 일원인 암셀 마이어의 아들과 손자가 창설한 회계법인이다. 장미은행을 인수한 BOA는 로스차일드 가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BOA의 대주주는 국제생태환경보존재단이라는 공익재단으로 라 쉴드 그룹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그런 가설대로 이 모든 것이 음모였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외국 기업이나 금융그룹, 회계법인, 로펌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나 조직이 있어야 할 텐데 정말 그런 인물이나 조직이 있기는 있는 것일까? (306쪽)

이 소설에서는 ‘위원회’라는 말 외에는 한 마디 설명도 없지만 그 제목 〈보이지 않는 제국〉이나 앞뒤 표지의 도안 ‘삼각형 속의 눈’(All Seeing Eye)에서 프리 메이슨(Free Mason)을 지칭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빈치 코드〉, 〈툼 레이더스〉, 〈내셔널 트레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invisible) 단체이다.



미합중국 건국 후 國章(Great Seal)을 만든 도안위원은 프리메이슨과는 무관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등 건국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 국력을 상징하는 피라미 위에 ‘신의 가호’를 나타내는 눈동자를 그려 넣었다. 그로부터 150년 후 이 국장을 1달러 지폐에 넣도록 한 이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그는 1935년 당시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한 뉴딜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다.

### III. 교육적인 측면

이 소설에는 법률가들이 흔히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과 희망사항이 빠지지 않고 나와 있어 흥미를 더해준다. 그렇기에 현재 및 미래의 법률전문가들이 고민하면서 읽을 수 있는 소설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비드 앤 솔로몬과의 합병에 반대하고 뛰쳐나와 태극 로펌을 차린 소수의 변호사들이 과연 장미은행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그 속편(Season II)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또 이 소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사실도 몇 가지 일깨워준다.

불의에 대한 또 다른 불의가 결코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악이 겹으로는 법과 정의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의를 다 저지르는데, 선이라고 하여 언제까지나 정의와 적법절차만을 따라야 한다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도대체 정의와 불의의 경계는 어디이고 또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299쪽)

우리 로펌은 M&A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우리 로펌의 임직원들 중에서 세 명을 선발하여 2년 정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M&A 분야를 전공하기 위해 유학과 연수를 보낼 예정이다. 물론 유학과 연수에 드는 학비와 생활비 등 모든 비용은 [불의의 사고로 작고하신] 최동수 변호사님의 재단에서 지원하게 된다. (310쪽)

지금 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이 중국임을 잘 알고 있을 거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지. 이 지구상에서 외국인으로서 가장 완벽하게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냐? 바로 한국 사람들이야. 그리고 지금 중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도 바로 한국이네.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중국 사업을 위해 중국의 한국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일세.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인으로부터 저항을 받지 않고 한국에서 좀 더 확고한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네. (195쪽)

그런데 이 소설의 작가인 윤상일 변호사가 법률업무를 전폐하고 그 속편의 집필에 전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장면의 전개가 빨라 영화화해도 될 듯 싶지만, 일단 소설책이 먼저 많이 팔려야 할 것이다. <야망의 함정>을 쓴 존 그리샴 변호사는 그가 쓴 소설마다 연속하여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화되는 바람에 변호사 일은 접고 자기 아이들 야구하는 것이나 돌봐주면서 후속 작품의 구상과 자료수집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sup>3)</sup>

3) 존 그리샴 변호사의 최근 근황은 그의 비공식 홈페이지<<http://www.johngrishamonline.com/>>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는 뉴욕타임스지의 부고 난을 읽다가 오클라호마 야구선수 출신 사형수가 무고하게 희생되었다고 믿고 2007년 년픽션 <The Innocent Man>을 발표했다. 당시 검찰측 인사가 존 그리샴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최근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작품도 2009년에 영화화될 예정이다.